



지난 5일 일산 컨텍스트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2만여 명이 박옥수 목사의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 '형식' 아닌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 필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한국 꺾림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는 전체 5,143만 명 중 771만 명(15.0%)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 불출석자(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이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30% 가량은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이다.

교인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생활이 어려워 다른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변화를 고민하고,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부르기 위한 행사와 이벤트 등을 벌이지만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비율이 계속 감소 추세라는 통계청 발표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밖에 있는가? 많은 목회자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 '죄 짓고 회개하고' 무한 반복 교회 다닐수록 커지는 공허함 문 닫는 교회 늘고 청년층 줄어 '설교' 위기 곧 '교회' 위기로 기본소식강남교회 박옥수 목사 "외형적 행위 죄 사함과 무관 회개 기도로는 죄 씻지 못해 교회는 죄 사함 길 알려줘야"



이야기, 긍정 심리학이나 성공학에 가까운 내용으로 채워진 설교도 많다. 이런 설교들이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들을수록 공허함과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설교에서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교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가 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500년 전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계승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지도자연합(CLF)'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목회자들이다. CLF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인간의 행위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영원한 속죄가 행위에서 벗어나 은혜만 바라보게 해주었다고 하며, 강단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에프레인 무노즈 목사는 "CLF에 참여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 정확히 배웠다. 그동안 내가 성경에서 실재가 아닌 그림자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라고 전했다. 이웃을 살피고, 옷을 벗어주라고 설교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실재가 아니었다. CLF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목회와 설교가 달라진 계기로, CLF 설립자인 기본소식강남교회 박옥수 목사와 만남을 이야기한다. 60년 이상 복음만 전해온 박옥수 목사는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유명하다. 각국 교회나 성당, 국가 차원의 예배와 기도회에 초청받아 설교하거나, 국가 정상들의 신앙적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박옥수 목사는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 회개를 죄를 짓고 난 후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 데에서 풀려나 하나님께 이 무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한다. 교회 출석, 봉사, 헌금 등 외형적 행위는 '죄 사함'과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한다. 박옥수 목사는 '죄에 대한 해결은 '죄 사함'이 아니라 '회개'라고 말한다. 회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 박옥수 목사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자' 평가



## "D.L. 무디, 요한 웨슬레가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은 복음이다"

현대 교회에서 '죄 사함'에 대한 설교를 듣기 쉽지 않다. 박옥수 목사는 이 분야의 주목받는 목회자로, 다양한 국제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의 설교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시민들을 위해, 그 동안 박 목사의 선교 활동과 설교를 접했던 125개국 666개 방송사는 그의 설교를 시리즈로 방송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그의 삶과 메시지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평가한다.

로널드 하든 미국 에픽바이블칼리지 총장은 "D.L. 무디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는 복음을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테비타 나완드라 바나바우 피지 감리교 전 총재는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는 말씀을 들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가 깨달은 복음도 나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셉 세우와 우간다 BAF목회자연합회 총회장은 "목사님의 삶 전체가 나에게 가르침 같았다. 특히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인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은 우간다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목사님이 미국 전역의 체플린 교육을 담당해주시길 바란다. 그의 메시지는 영혼을 살리며,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이다"고 말했다. 영국 스필전신학대학 총장 필립 머는 "박옥수 목사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거둔다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도 그의 일을 돕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의 에우모 세잘 파치올리 신부는 "박 목사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믿음을 뚜렷이 볼 수 있었고, 진정한 지도자들이 가진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옥수 목사를 만난 지도자들은 더 많은 리더들과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길 바라며, 그를 초청하고 있다. 박옥수 목사는 누구를 만나든 죄를 씻어주는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죄 사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박옥수 목사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전남 시민들을 위해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주 강사로 참석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본소식선교회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 굿뉴스TV, 굿뉴스TV global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세미나가 열리는 광주문화체육센터에 방문하면, 성막 전시와 신앙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2026.5. 3.(일) ~ 5(화) 밤 7:00, 낮 10:30 광주문화체육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6) WERE YOU THERE 부활절 콘서트 성막 전시회 주최 | KCA 한국기독교연합 주관 | 기본소식선교회 문의 | 062-941-8503 www.bibleseminar.kr